

[소피아] 불가리아, 영공 침범 드론 폭발 계기 안티드론(Anti-Drone) 체계 긴급 도입 추진

'26. 8월. 12일(수)

□ 개요

- '26.8.8(토) 새벽, 루마니아 접경 도브리치주 요브코보(Yovkovo) 인근에서 정체불명 드론 1대가 폭발·추락. 불가리아·루마니아 방공망 모두 사전 탐지에 실패
- '26.8.10(월) Dimitar Stoyanov 국방장관은 국영방송(BNT)을 통해 “최단 시일 내 신규 안티드론 체계 확보가 필요” 긴급 도입 방침 공식화

□ 주요 내용

○ 사건 개요

구분	내용
기종	우크라이나산 디코이 드론 'Maya'로 추정. 크기 약 2×2m, 목재 동체에 금속 엔진만 탑재된 구조로 레이더 반사면적이 극히 작아 저고도 침투 시 탐지가 곤란
제원	항속거리 최대 600km, 탑재중량 최대 5kg, 가솔린 엔진, 대당 가격 4,500~5,000유로(일부 형상은 자폭 기능 탑재)

- 루마니아 영공을 경유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. GPS 모듈은 회수했으나 비행경로 데이터 추출에 실패했고 제어보드 손상이 심각. 국방부는 ①GPS 교란에 따른 항로 이탈, ②제어계통 결함 가능성 제시
- 불가리아 측은 확보한 일련번호를 우크라이나에 통보하고 발진지 확인을 요청 중이며, 폭발 여부는 내무부 감식 결과 대기 중

○ 정부 대응 및 조달 계획

- (조달 수단) EU SAFE 메커니즘을 활용해 약 10기 규모의 안티드론 체계 도입을 추진 중
- (성능·한계) 방어반경 3~5km 수준으로, 장관 스스로 “전 국토 완전 커버는 우리 예산으로 감당 불가”라고 시인. 필요 수량은 비공개
- (공급선) 신속 납품을 조건으로 미국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, EU 집행위·Frontex와도 병행 협의

- (기존계획) 불가리아는 앞서 SAFE 틀 내에서 그리스 HAI사의 'Centauros' 대드론 체계 100기 이상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- (내무부) 이반 데메르지에프 내무장관은 “현 보유 탐지·대응 장비는 수량과 성능 모두 제한적이며, 기술적으로 1~2개월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”라고 언급

□ 시사점

- 대드론 항목의 조기 집행 및 물량 확대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실제 계약은 '26년 하반기~'27년 상반기에 가시화될 전망
- 조달 통로가 SAFE(역내 부품비중 65% 요건)와 미국 기업과의 직접 협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단독 참여 여지는 제한적. EU 역내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현지 통합·조립 구조 확보가 사실상 입찰 참여의 전제 조건

□ 정보원 및 일자 (2026.8.10.)

Dnevnik(2026.8.10.),

https://www.dnevnik.bg/bulgaria/2026/08/10/4944114_kabinetut_shte_kupuva_antidron_sistemi/